

大衆教育에서의 秀越性



江原大 總長 李 相 周

1. 韓國 大學의 大衆化

한국의 대학교육은 지난 수년에 걸쳐 크게 大衆化되었다. 대학의 대중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教育機會의 대중화이고 다른 하나는 大學機能의 대중화이다. 해방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의 대학교육은 엘리트주의 교육에 머물러 있었다. 전국의 高等教育機關數는 불과 9개교밖에 되지 않았으며 大學生數는 8,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해방을 맞을 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계층의 극소수 자녀들만이 대학에 다닐 수 있었고 대학교육을 이수한 후 젊은이들의 밝은 장래는 거의 확실히 보장되었었다. 해방 이후 약 40년 가까이 지난 오늘의 한국 대학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全國의 高等教育機關數는 25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대학생 수는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말해서 해방 후 매년 6~7개교의 고등교육기관이 이 땅 어딘가에 즐근 문물 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한 학생수는 약 32만에 달하며 이것은 대학에 들어갈 한 年齡層의 人口數를 85만명으로 추정한다면 거의 40%에 가까운 것이다. 이처럼 높은 大學進學率은 美國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日本에 버금가는 것이며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의 先進國家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이것은 좀 지나치다고 할 만큼 고등교육이 量的으로 膨脹했음을 의미한다. 트로우(Martin Trow)라는 미국의 사회학자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대학교육이 이제는 大衆教育(mass education)의 단계를 지나서 머지 않아 普遍教育(universal education)의 단계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어지간한 能力과 抱負만 가지면 계층에 관계 없이 누구나 대학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었다. 고등교육의 機會擧大로 少數精銳主義教育의 시절에 대학이 누렸던 威勢와 權威가 상당히 떨어졌다.

保守主義的 知識人들은 대학의 本質的 機能은 자연과 인간의 理致와 秩序를 탐구하고 삶의 意味와 價値를 개발하는 데 있으며 폭 넓은 教養과 전문적 能力을 고루 갖춘 知性人을 양성하는데 있다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그러나 近代教育史를 통하여 볼 때, 民主産業社會가 출현하면서 대학은 점차 사회의 現實的 要請을 충족시키고 民衆의 福祉를 직접적으로 增進시키는 大衆的 機能을 담당할 것을 강력히 요청받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은 보다 많은 시간과 정력을 職業教育, 應用研究, 政策研究, 社會奉仕 등에 바치게 되었다. 한국 대학의 발달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機能의 大衆化의 추세가 역력히 눈에 띈다. 지난 20~30년을 돌이켜 보면 國家發展의 과정에서 사회의 知識需要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政府와 企業과 각종 社會團體는 그들 자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知識人의 參與와 協助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高級人力의 축적이 미약했던 관계로 公共機關이나 民間團體가 자체적으로 高級人力을 보유하기는 어려웠으며 대학에 있는 지식인을 잠시 빌려 쓰는 형식을 취했던 것이다. 그래서 대학의 教授들은 政府의 각종 開發計劃과 政策樹立을 諮問하기 위하여 많이 불러 다녔고 企業의 經營診斷과 社員教育을 위하여 부지런히 뛰어 다녔으며, 社會問題가 발생할 때마다 萬病通治藥이나 가진 사람들처럼 많이 외치고 다녔다.

大學教授의 校外活動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속의 활동에서도 機能의 大衆化 現象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研究活動에서 基礎研究보다 應用研究와 政策研究의 비중이 더 커지고 教育課程에서 敎養教育보다 職業教育이 더 강조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관심은 探究活動 자체보다 졸업후의 就業에 더 기울고 있는 경향은 바로 대학기능의 대중화를 보여 주는 것이다. 요즈음 대학에 흔히 볼 수 있는 經營者課程, 政策세미나, 새마을연구소, 高試館, TOEFL班 등은 대학기능의 대중화를 보여 주는 外的 증상들이다.

II. 學問의 秀越性的의 低下

그간 한국 대학의 대중화는 國家發展에 공헌한 바도 크지만 많은 逆機能的인 결과를 빚어내기도 했다. 대학의 대중화가 사회에 대해서 끼친 공헌도 공헌이지만 많은 젊은이들에게 自我實現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저마다의 素質과 才能을 開發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 그 자체로서도 대학의 대중화를 肯定的으로 評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중화된 한국 대학의 밝은 면 뒤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그 그림자는 대학이 발휘해야 할 創造力을 크게 위축시키고 知的 秀越性을 달성해야 할 대학의 앞길을 어둡게

하고 있다. 대학에 있어서 「모두를 위한 教育」(education for all)은 「平均人을 위한 教育」(education for the average)으로 轉落하고, 大衆教育은 個性과 自發性이 무시된 集團教育을 초래하고, 實用性과 能率性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는 대학의 學問的 創造性을 희생시키고 있다.

대학생 인구의 갑작스런 증가는 教育施設과 教授要員의 不足現象을 더욱 深化시켜 놓았고 대학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화시켜 놓았다. 非人格化된 集團教育의 상황에서는 각자의 능력과 요구에 맞는 個性教育이 어려워짐으로써 학생들은 대학교육의 適合性(relevance)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고 不滿과 疎外感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오늘의 대학은 天才들을 위한 교육만을 실시할 수 없으며 平凡한 市民을 위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보통의 능력을 가진 平均人을 위한 生活適應教育에만 몰두한다면 大學 本然의 文化創造的 使命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 學問의 最前線을 개척하고 새로운 文化를 創造하기 위해서 백 사람의 凡人보다 한 사람의 天才가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오늘의 한국 대학은 백 사람의 凡人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天才를 死藏시키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교수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研究와 教育에 몰두하지 못하고 대학의 行政管理나 社會奉仕를 위한 업무에 더욱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대학의 지식인들은 商業主義的 世俗化에 빠지는 경향이 더욱 짙어졌다. 그것은 사회 각 분야의 격증하는 知識需要에도 원인이 있지만 大學과 大學人의 業적을 단지 費用-效果(Cost-Benefit)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대학에 대해서 即時的 效能과 成果를 기대하는 사회의 성급한 요청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의 지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나 러셀(Bertrand Russell) 같은 철학자들도 한결같이 대학에 대한 성급한 實用主義的인 期待는 순수한 학문추구에 장애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화이트헤드는 “대학의 과업은 想像과 經驗을 집합하는 데 있다”고 보고 상상과 경험을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時間餘裕, 속박으로부터의 自由, 귀찮

은 근심거리와 복잡한 일상경험으로부터의 解放 그리고 다양한 의견과 지식을 가진 他人의 精神에 의한 자극" 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셀은 "大學이 存在하는 두 가지 目的은 첫째로, 젊은 남녀를 특정한 專門職에 맞게 訓練하고, 둘째로 卽時的인 有用性을 고려치 않고 學問과 研究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모든 대학교수는 연구에 몰두해야 하며 모든 나라에서 그의 研究主題에 대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정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韓國 大學의 학문적 秀越性을 떨어뜨리는 또 한 가지의 원인은 대학 내외에 만연되어 있는 非合理的이고 反知性的인 風潮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사회인들의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資格取得을 위해서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과 같은 오도된 價値觀은 대학의 수월성을 저하시키는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생들 중에는 思索과 探究를 통한 自己發展보다는 직접적 現實參與와 介入을 통한 社會改革을 요구하고 理性的 思惟보다는 感性的 行動을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상당수 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急進的 行動主義가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학원을 政治場化하고 大學의 知的 探究氛圈氣를 흐리게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대학인들은 학문의 最高水準에 도전하는 것보다 最少基準의 통과에 더 큰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大學行政家는 행정가대로 法的 基準과 行政指示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데 급급하고,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昇進과 再任用의 요건이 되는 최소한의 論文을 작성하는 데 급급하며, 학생들은 그들대로 卒業定員制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성적따기에, 급급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의 대학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은 成就動機가 아니라 生存動機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대학에 있어서 교수의 能力評價와 학생들의 成績評價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人情主義와 無事安逸主義의 價値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외국 대학 교수들의 너리

를 지배하고 있는 「저술하지 않으면 멸망한다」(Publish or perish)라고 하는 強迫觀念이 한국의 대학교수에게는 그렇게 切迫한 것이 못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을 졸업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직 학생들간에 확고히 定着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非合理的인 價値觀은 대학으로 하여금 秀越性(excellence)의 달성보다는 平準性(mediocrity)의 유지를 위하여 安住케 하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한국 대학의 학문적 수월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대학의 大衆化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大衆化된 大學教育을 엘리트주의 교육으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歷史의 수배 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단지 우리에게서 大衆教育 속에서 學問의 秀越性을 높이는 길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Ⅲ. 高度産業社會와 大學

韓國 社會가 高度産業社會로 나아가는 데 關鍵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高度工學(high-technology)을 발전시키고 産業을 高度化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科學技術의 계속적 革新과 그것의 經濟的 活用 없이는 고도산업사회가 되기 어렵다.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외국으로부터 導入한 技術로도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었지만 고도산업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尖端 科學技術을 자체적으로 研究·開發할 수 있는 體制와 力量을 구비해야 한다. 오늘의 한국 대학은 尖端 科學技術의 연구개발과 그러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科學者와 技術者를 양성해내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학은 이제까지 外國의 學問과 技術을 받아들이고 모방하던 단계에서 탈피하여 物理學, 化學, 生物學 등 기초과학 영역은 물론 電子工學, 遺傳工學, 資源工學 등 여러 응용과학 영역에서 새로운 理論과 原理를 연구해내는 개척적이고 창조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 4월에 「教育의 秀越性에 관한 全國委員會」가 「危機에 처한 國家」라는 제목을 단 公開狀을 공포

하여 미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자못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공개장에서 美國은 한 때 産業, 科學, 工學 등에서 절대적 優位를 누렸지만 이제는 세계의 다른 여러 先進競爭國들에 의해서 그러한 우월성이 심각한 挑戰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주된 원인은 平凡性(mediocrity)에 빠져 있는 美國教育에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의 質의 水準을 따진다면 미국보다는 한국의 교육이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야 이미 産業과 科學技術의 水準이 最高에 이른 나라이며 풍부한 資源을 가진 나라이다. 韓國은 지난날 산업이나 과학기술에 있어서 세계수준에 이른 적도 없으려니와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人的 資源 밖에 없는 나라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더 교육에 대한 절박한 危機意識을 가져야 하며 교육의 수월성은 우리에게 더 절실히 要請되는 것이다.

高度産業社會에 있어서 自然資源보다도 知識과 情報 그리고 學者들의 學問能力과 국민의 知的 能力이 점점 더 중요한 資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자연자원의 한계를 상당한 정도로 극복할 수 있을 전망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大學은 국가의 總體의 知力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社會組織이므로 國力の 중요한 源泉이 된다. 이미 資源의 保有量이나 人口의 規模나 領土의 넓이에 의해서 국력이 결정되던 시대는 지났으며 未來社會에서는 더욱더 대학의 探究力量과 教育力量에 의해서 국력이 좌우될 것이 예상된다. 벨(Daniel Bell)은 다가오는 脫産業社會에서는, 추상적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知的 技術工學(intellectual technology)이 크게 발전하고 專門職과 管理職, 科學者와 技術職과 같은 고급 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오늘날 대학은 그러한 高級人力을 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요청을 받고 있다.

高度産業社會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行動科學과 社會科學 分野의 고도한 지식과 판단도 요구된다. 다가오는 未來社會는 더욱 複合的이고 多元의 社會로 변해갈 것이며 사회의 변화속도가 더욱 加速化될 것이 예상되

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의 統合성과 適應性을 높이기 위해서도 행동과학과 사회과학의 발달이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세계는 國家間의 相互依存性이 높아지고 國際化의 추세가 더욱 진전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의 言語와 文化와 社會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더욱 요청될 것이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多様な 價値觀이 서로 相衝하고 葛藤할 것이며 사람들은 그러한 가치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規範的 判斷能力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도산업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物質的, 時間的 餘裕과 工學社會의 生活環境은 인간의 審美的 欲求를 더욱 자극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대학은 고도산업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自然科學 分野뿐만 아니라 社會科學과 人文學 分野에서도 수준 높은 연구와 교육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人文社會科學은 특히 사회기능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綜合的 識見과 判斷力 그리고 폭 넓은 教養的 知性을 배양하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大學은 고도산업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모든 학문영역에서 학문적 秀越性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IV. 秀越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그러면 한국 대학이 학문적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대학의 學問的 秀越性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質 높은 教授要員을 確保하는 데 있다고 본다. 우선 유능한 교수요원의 양성을 위한 劃期的 計劃이 수립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교수 1인당 학생수가 적어도 15명 정도까지 하루 속히 낮추어야 할 것이다. 우수한 교수요원을 양성할 수 있는 國內의 教育體制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을 外國 大學에 派遣하여 學者를 養成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각 학문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外國의 著名한 學者를(外國語教育을 위한 原語使用者 정도가 아니라) 초빙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의 대학들이 유럽의 一級 學者들을 초빙하여 학문을 크게 발전시킨 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교수의

研究業績과 教授活動의 評價에 있어서 엄격한 학문적 기준을 적용하는 合理的인 教授人事管理制度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자들의 연구 능력은 學術團體의 自律的 過程에 의해서 평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모든 학문분야에 걸쳐 生産的이고 批判的인 學術共同體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大學教育의 秀越性を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풍부한 學術資料 및 圖書 그리고 現代의 教育機資材 및 實驗器具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政府의 財政的 支援에 힘입어 國·公立大學들은 상당한 정도의 외곽 시설을 갖추어 가고 있고 私立大學들도 현대적 시설을 많이 확보했다고 본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대학과 비교하면 韓國의 大學建物 내부는 아직 텅텅비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政府가 大學圖書館 擴充計劃을 수립하여 公·私立大學에 관제 없이 풍부한 學術資料와 圖書를 확보하도록 財政的, 行政的 支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貴重資料(예로서 奎章閣 및 藏書閣 도서)를 복사하거나 또는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전국 대학에 배포한다든지, 또는 외국 학술잡지와 도서를 신속히 수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政府는 그동안 借款事業이나 豫算事業으로 교육기자재와 과학실험기구를 대학에 공급하여 큰 成果를 거두고 있지만, 그러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며 특히 컴퓨터와 첨단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最新 機資材의 확보를 위하여 획기적 지원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세째로 대학의 학문적 秀越性を 높이기 위하여 大學院教育을 과감하게 改善·強化하여야 한다. 오늘날 대학원교육의 현실은 職場을 가진

대학졸업자의 여가선용 활동이나 成人들의 資格取得을 위한 再教育과 같은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원이 심오한 학문연구를 위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대학원교육이 직장안의 「副業」처럼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학문에 專念하는 젊은 학자들의 「本業」이 되어야 한다. 學問發達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學問을 副業으로 하는 것으로는 선진국의 尖端學問을 쫓아가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의 장학금제도를 개선하여 대학원 학생을 위한 장학금제도를 대폭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원교육을 통하여 젊은 학자들에게 高度의 研究能力을 배양하기 위하여 일종의 徒弟教育制度(apprenticeship)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네째로 대중화된 대학교육의 秀越性を 높이기 위해서는 教育課程과 教育組織이 더욱 個別化되어야 한다. 능력 있는 학생은 더욱 깊은 학문에 접할 수 있고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補充教育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은 능력 있는 학생들이 그들이 가진 才能을 최대로 啓發하고 尖端學問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천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集團教育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의 教育組織을 가능한한 小單位化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학문적 秀越性を 제고하기 위해서는 非學術的 大學風土를 일소하고 知的 大學文化를 조성해야 한다. 오늘의 한국 대학은 어느듯 享樂的 祝祭文化와 行動主義的 政治文化가 스며들어 학문적 生産性を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 대학은 理性的 對話와 知的 探究 분위기로 충만케 하여 학문적 秀越性を 높여야 할 긴급한 시대적 요청 앞에 서 있다. *